

‘영암의 딸’ 유해란, 세계 5위 ‘깡충’…상승세 타고 2연승 도전

LPGA 블랙 데저트 챔피언십서 와이어 투 와이어로 시즌 첫 승
12일 미즈호 아메리카스오픈 출전…‘디펜딩 챔피언’ 코다와 경쟁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첫 승을 일군 ‘영암 출신’ 유해란이 연속 대회 우승에 도전한다.
유해란은 9일(한국시간)부터 12일까지 미국 뉴저지주 저지시티의 리버티 내셔널 골프클럽(파72·669야드)에서 열리는 LPGA 투어 미즈호 아메리카스오픈(총상금 300만달러)에 출전한다.
유해란의 기세는 남다르다.
그는 5일에 끝난 신설 대회 블랙 데저트 챔피언십에서 1~4라운드 내내 선두를 놓치지 않은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차지했다.
자신의 최다 언더파 기록인 26언더파 262타로 공동 2위 에스터 헨젤라이트(독일), 인뤼닝(중국)을 5타 차로 제쳤고, 2~4라운드에선 3일 연속 이글을 잡는 등 환상적인 샷 감각을 선보이기도 했다.
올 시즌 페이스 자체도 좋다. 그는 올해 출전한 LPGA 투어 8개 대회 중 7개 대회에서 모두 20위권 내의 안정적인 성적을 거뒀다.

지난달엔 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셰브론 챔피언십에서 3라운드까지 단독 선두를 달리는 등 맹활약하다가 공동 6위를 기록했다.
그는 6일 발표한 세계 랭킹에서 개인 최고인 5위로 꺾충 뛰어오르기도 했다.
강력한 경쟁자는 세계 랭킹 1위이자 디펜딩 챔피언인 넬리 코다다.
이 대회는 코다에게 특별하다.
지난 시즌 7차례 우승을 차지한 코다는 6번째 우승컵을 이 대회에서 들었다.
코다는 지난해 LPGA 투어 개막 5연승을 달리다가 코그니전트 파운더스컵에서 공동 7위로 밀리면서 6연승을 이루지 못했지만, 곧바로 미즈호 아메리카스오픈에서 다시 우승하며 건재를 과시했다.
다만 올해 코다는 지난 시즌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올 시즌 개막전인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스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2위에 올랐으나 이후 출전

한 모든 대회에서 5위 밖의 성적을 냈다.
오히려 세계랭킹 2위 지노 티파꾼(태국), 3위 리디아 고(뉴질랜드) 등 다른 선수들이 유해란과 우승 경쟁을 펼칠 수도 있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한 타 차로 우승을 놓친 해나 그린(호주)도 경쟁에 뛰어든다.
블랙 데저트 챔피언십에서 공동 2위에 오른 헨젤라이트, 인뤼닝도 참가 신청을 했다.
2023년 이 대회 우승자인 중국계 로즈 장(미국)은 목 부상을 입고 약 한 달 만에 투어 대회에 나선다.
한국 선수 중에서도 이번 대회 우승 트로피를 노리는 이가 많다. 김아림과 김세영, 양희영, 최혜진, 전인지, 이정은, 윤이나, 주수빈 등이 출전 신청을 했다.
이 대회 우승 상금은 45만달러(약 6억2000만원)이고, 한국계 재미교포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미셸 위 웨스트가 주최한다.
한편 유해란의 도약으로 세계 랭킹 톱 10엔 한국 선수 3명이 포진하게 됐다.
지난주 7위와 8위를 달리던 김효주와 고진영은 각각 한 계단씩 밀린 8위와 9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유해란이 지난 5일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블랙 데저트 챔피언십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차지한 뒤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도군청 육상팀, 전국실업선수권 금빛 질주…남보하나, 대회新

엄태건 800m 금메달 등
금 2·은 1·동 5개 획득

진도군청 육상팀이 ‘제29회 KTFL 전국실업육상선수권대회’에서 메달 8개를 따냈다.
최근 나주종합스포츠파크에서 끝난 이번 대회에서 진도군청 육상팀 선수들은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5개를 획득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남보 하나는 여자 일반부 3000m 장애물 경기에서 10분29초65의 대회 신기록으로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종전 기록은10분37초41이다.
남보 하나는 여자 일반부 800m 릴레이 계주에



‘제29회 KTFL 전국실업육상선수권대회’에서 선전한 진도군청 육상팀이 메달을 들어보이고 있다.

〈전남체육회 제공〉

서도 김다연, 이서빈, 이유정과 9분51초45를 기록하며 동메달을 추가했다.

이유정은 여자 일반부 10000m 경기에서 36분41초10으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이서빈은 800m(2분14초09)와 1500m(4분33초62)에서 동메달 2개를 더했다.
엄태건은 남자 일반부 800m에서 1분51초84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금메달을 얻어냈다. 이주니는 10000m 경기에서 31분01초48로 3위에 올랐다.
1500m릴레이 계주에서도 진도군청(장호준, 이주니, 조민혁, 엄태건)은 17분24초42로 동메달을 얻어냈다.
이와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국가대표로 이름을 올린 신소망(나주시청)이 여자 일반부 1500m 결승선을 4분 25초 51에 통과하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 일반부 세단뛰기 경기에서는 이운솔(여주시청)이 11m92로 1위를 기록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외국인 대어 잡아라”…프로배구 트라이아웃 개막

남자부 35명·여자부 40명 참가…9일 드래프트 개최

프로배구 2025-2026시즌 V리그 판세 변화를 주도할 외국인 선수를 뽑는 트라이아웃이 막을 올린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6일부터 8일까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을 연 뒤 9일 드래프트를 개최한다.
올해 외국인 트라이아웃에는 총 207명(남자부 135명, 여자부 72명)이 신청한 가운데 구단의 평가를 반영해 40명을 추렸다.
참가 취소자를 제외한 남자부 39명과 여자부 37명에 2024-2025시즌을 완주한 선수 중 참가를 신청한 남자부 3명, 여자부 6명을 합쳐 남녀부 각 42명과 43명이 최종 명단에 올랐다.
그러나 최종 명단 공지 후에도 추가 불참자가 나왔다.
남자부에서는 국내에서 뛴 경험이 있는 토마스 에드가(호주), 루이스 엘리안(쿠바) 등 7명이 여러 이유로 불참하게 됐다.
여자부에선 작년 트라이아웃 때 페퍼저축은행

에 지명받았다가 초반에 퇴출됐던 바르바라 자비치(크로아티아)가 클럽팀 일정을 이유로 참가하지 않는 등 3명의 불참자가 생겼다.
이에 따라 남자부는 35명, 여자부는 40명이 지명을 기다린다.
드래프트는 2024-2025시즌 성적을 기준으로 총 140개의 구슬을 넣어 차등 확률로 지명 순서가 정해진다.
7위 35개, 6위 30개, 5위 25개, 4위 20개, 3위 15개, 2위 10개, 1위 5개의 구슬을 배정한다. 남녀부 최하위였던 OK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이 25%의 가장 높은 추정 확률을 가진 셈이다.
남자부 초청 선수 중 일본 1부리그 사카이 블레이저스 소속의 키 206cm 아포지 스파이커 새런 베네티(베네티스(캐나다)와 쿠바 대표팀에서 활약한 미들블로커 호세 마소 등이 대어로 꼽힌다.
또 일본 리그를 경험한 207cm의 아포지 스파이커 하파엘 아라우조(브라질)와 불가리아 국가대표 아웃사이드 히터 데니슬라브 발다로프, 쿠바 리

그 최우수 아웃사이드 히터로 뽑힌 야세르 라미레스도 눈에 띈다.
우리카드에서 뛰었던 미힐 아히(네덜란드)와 대한항공의 주포로 활약했던 요스바니 에르난데스(쿠바·이탈리아)도 선택을 기다린다.
여자부에선 지난 시즌 독일 1부리그에서 활약한 아웃사이드 히터 빅토리아 데미도바(러시아)와 2021 발칸 챔피언십 U-19 베스트 아웃사이드 히터로 선정된 193cm의 반야 사비치(세르비아), 2024-2025 루마니아 슈퍼컵 최우수선수(MVP) 이우나 자도로즈나이(루마니아)가 대어급으로 꼽힌다.
또 작년 세르비아 리그 득점 3위인 아페도 만양(미국)과 2개 구단으로부터 1위 평가를 받은 엘리사 자네티(이탈리아), 캐나다 국가대표 출신의 아포지 스파이커 나타샤 캘킨스 등도 주목받고 있다.
2021-2022시즌 IBK기업은행 유니폼을 입었던 한국계 미국인 레베카 라센과 ‘빅유닛’ 랜디 존슨의 딸로 흥구생명에서 뛰었던 윌로우 존슨(미국) 등도 V리그 재입성을 기대한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양궁 선수들, 전국 중별선수권 선전

광주·전남 선수들이 제59회 전국 남·여 양궁 중별선수권 대회에서 선전했다.
최근 경북 예천진호양공장에서 끝난 이번 대회에서 2025 여자 양궁 국가대표 김수린(광주시청)은 여자 리커브 일반부 30m에서 356점으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50m 경기에서는 335점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미선(광주은행 뎡뎡양궁단)은 여자 리커브 개인 종합에서 1359점을 기록하며 2위에 올랐다. 최미선은 60m(348점)에서도 은메달을 더했다.
여자 대학부 경기에서는 김서하(순천대1)가 3개의 금메달과 2개의 은메달을 차지했다.
김서하는 50m와 70m에서 각각 337점, 338점

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김서하는 30m(353점)과 거리별 합계 종합(1366점)에서는 은메달을 따냈다.
김서하는 탁해운·김가은·서보은과 4046점을 합작하면서 한국체대(4031점)를 제치고 단체인 우승도 차지했다.
오예진(광주여대4)은 50m 경기에서 335점으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남자 고등부 경기에서는 박주혁(광주제고2)이 개인 종합 금메달(1343점) 주인공이 됐다. 그는 50m(339점)와 90m(325점) 경기에서는 2위에 이름을 올렸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지난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장성에서 열린 제33회 전남장애인체육대회에서 순천시가 1위를 차지했다. 〈전남체육회 제공〉

“화합과 감동의 사흘”…전남장애인체전 마무리

순천시 우승…역도 박소영 최우수 선수상

제33회 전남장애인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장성 일대에서 열린 전남 장애인 체전은 전남 지역 선수단 5000여 명이 참여해 치러졌다.
이번 체전 우승은 20개 종목에 237명이 참가한 순천시가 차지했다. 2위에는 여주시가, 3위에는 광양시가 이름을 올렸다. 개최지인 장성군은 10위에 오르며 도약상을 수상했다.
모범 선수단에는 장흥군이, 으뜸선수단에는 무

안군, 도전상에 고흥군, 열정상에 구례군이 선정됐다. 공정경기상은 전남보치아연맹이 받았다.
최우수 선수상은 금메달 3개를 따낸 역도(84kg) 박소영에게 돌아갔다.
올해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하는 당구의 조정화(한국농어촌공사), 포환던지기의 나현철(한전KPS)도 금메달을 수확했다.
한편 2026년 대회는 구례군에서 열린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창극단 특별기획공연 '풍류 in 광주'

일시 / 장소 :
-04월 19일(토) 13:30, 15:00 / ACC 상상마당
-06월 07일(토) 13:30, 15:00 / 푸른길공원
-06월 14일(토) 13:30, 15:00 / 양산호수공원
문의 : 062-526-0363
*우천 시 야외공연은 취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GAC 공모전시 사모곡 비우면서 채우는... : 류현자 개인전

일시 : 2025-5-2(금) ~ 2025-6-1(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2025. 5. 2(금) ~ 6. 1(일)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류현자 개인전
New Music by Ryu Hyunja